‘평화당 조직력’ VS ‘민주당 바람’

■ 목포시장 후보

정당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한반도미래연합
이름(나이)	박홍률(64)	김종식(67)	박명기(48)	김성남(44)
주요경력	목포시장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목포시위원장	전남도당 위원장
주요공략	·일자리 2만개 창출 ·1000만 관광객 시대 실현 ·친환경 도시 건설 ·모든 시민이 행복한 복지목포 구현 ·강소도시 경쟁력 제고	·서남권 경제통합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해양레포츠산업 육성 ·목포신항, 국제무역항 개발	·보건의료 중심도시 목포 디자인 ·경쟁력 있는 해양도시 탈바꿈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발전 ·주민참여를 통한 정치혁신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목포 실현	·목포항~상해항 해저 터널·철도 건설 ·목포 항만복합물류 국제항구 구축 ·10만명 일자리 창출 ·유엔 세계재활은행 통한 자금 유치 ·목포시 창업교육센터 창설

6·13 지방선거 표밭 점검

■ 목포시장

후보간 정책·인물 대결보다 정당 대결

평화 박홍률-민주 김종식 2강 구도

목포시장 선거는 후보간 정책·인물 대결보다는 정당 대결로 흐르는 분위기다. ‘평화당 조직력’ 대 ‘민주당 바람’의 승부다. 한반도에 불고 있는 민주당 바람이 태풍으로 변할 지, 아니면 미풍으로 그칠 지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 바람이 선거 판세를 뒤집을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는 어렵지만, 상승국면의 여당에 주마가편의 긍정 요소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광역단체장과 달리 기초단체장 선거는 정당보다 인물·조직 대결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확실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진 평화당이 건재해 판세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특히 목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평화당의 존폐 여부를 가늠할 심장부인데다 평화당 지도부도 기초단체장 가운데 “목포시장만은 절대 놓칠 수 없다”며 중앙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점도 변수다. 게다가 목포는 박지원 의원 지역구로, 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원 대부분이 민주당보다는 친 박지원 계열이다.

이번 목포시장 선거는 현직 시장인 평화당 박홍률 후보와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김종식 후보가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과 한반도미래연합 후보가 가세한 4파전 모습을 띠고 있다.

목포시장 수성에 나선 평화당 박홍률 후보는 목포관광 백년대계를 이끌 해상케이블카와 대양산단 수산식품 특화단지 조성,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등 뚜렷한 성과를 바탕으로 강소도시·3대 희망도시 목포 건설을 담은 ‘2022 희망 목포’를 선포했다.

박 후보는 재임기간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대양산단 분양률을 43%까지 끌어올리면서 재정 파탄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다. 민선 6기 출범 당시 3010억원에 달하던 부채를 1065억원을 상환해 1945억원으로 낮췄다. 그는 “30년 숙원사업인 해상케이블카를 완공해 국제관광도시 도약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강소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앞으로 4년이 더 중요하다”며 “시작했으니 마무리할 수 있게 맡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김종식 후보는 3선 완도군수와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역임,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쇠락한 목포 부흥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기초단체장 출신이 또 다른 기초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국내 첫 사례로, 그의 당선 여부는 전국적인 관심사 중 하나다.

김 후보는 물류와 사람이 흐르는 경제도시 건설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목포의 발전과 인근 전남 서남권의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 목포·무안·신안·영암·해남·진도·완도 등 7개 시군이 참여하는 ‘서남권 경제통합’을 제시했다.

정의당 박명기 후보는 투명한 지방자치 실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 후보는 “목포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방권력을 물갈이하지 않고서는 목포의 미래를 열 수 없다. 지역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세력의 교체만이 목포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표밭을 공략하고 있다.

한반도미래연합 김성남 후보는 “목포에 위성 휴대전화 공장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복합물류항만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5석 모두 평화당… 몇 곳 지킬지 최대 관심

■ 전남도의원(목포)

목포지역 전남도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간 혈투가 예상된다. 정의당은 제4선거구에만 후보를 냈다. 도의원 5석 모두를 차지하고 있는 평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몇 곳을 수성할 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제1선거구(연산동·원산동·용해동)는 두차례 무투표 당선된 강성휘 평화당 후보에 민주당 박문옥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제2선거구(산정동·대성동·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죽교동·북항동)는 한방 무료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펼쳐온 민주당 조옥현 한의사와 지역 문화계의 대표주자인 평화당 이방수 전 목포시의원이 맞붙는다.

제3선거구(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이로동·하당동)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표방한 평화당 고경석 도의원에 맞서 민주당에선 40대 젊은 기수를 앞세운 최선국 전 목포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 각축을 벌인다. 제4선거구(상동·삼향동·옥암동)는 평화당 김탁 도의원에, 교육계 기수를 내세운 이혁제 민주당 후보와 박권철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부위원장이 맞붙어 3자구도를 띠고 있다.

제5선거구(신흥동·부흥동·부주동)는 최대 격전지로 빅 매치가 예상된다. 민주당 전경선 후보와 평화당 배종범 후보는 2014년 선거에서 역대 최소 표차인 7표차로 승패가 갈렸다. 리턴매치가 다시 성사됐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 름(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박문옥(41·민·옥외광고협회 목포시 지부장) 강성휘(50·평·전 전남도의원)
제2선거구	조옥현(48·민·고구려한의원장) 이방수(53·평·전 목포시의원)
제3선거구	최선국(44·민·전 목포사회적기업협의회장) 고경석(55·평·전 전남도의원)
제4선거구	이혁제(48·민·전 경희대 객원교수) 김 탁(56·평·전 전남도의원) 박권철(48·정·목포시위원회 부위원장)
제5선거구	전경선(53·민·전 목포시의원) 배종범(58·평·전 전남도의원)

민=더불어민주당, 평=민주평화당, 중=민중당

전·현군수 무소속 출마…후보 난립

6·13 지방선거 표밭 점검

■ 신안군수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 현 군수의 무소속 출마 등으로 신안군수 후보는 난립 양상이다. 민주당 천경배(44) 후보, 민주평화당 정연선(64) 후보, 무소속 고길호(73)·김승규(60)·박우량(62)·임흥빈(57)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고길호 예비후보는 군정경험과 청렴성, 정직성을 내세워 표밭을 훑고 있다. 그는 “지난 4년간 다져놓은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으로 행복한 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 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십자형 도로망 완성, 신안관광 500만 시대 조기 실현, 무화과·단호박·시금치·생강 등 권역별 고소득 특화품목 지정·육성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천경배 후보는 추미애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과 문재인대통령후보 상임선대위원장 비서실 팀장을 역임했다. 그는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 능력있는 젊은 군수’를 내세우며 개혁과 젊음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천 후보는 집권당의 힘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다도해라는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실버복지 섬, 줄세우지 않는 공직인사, 신안 특산품 브랜드 강화 등을 공약했다.

평화당 정연선 후보는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 재목신안군향우회장을 지냈다. 그는 고령화 인구가 많은 만큼 복지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청년들이 신안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륙· 연도교 조기 착공, 항구적 도서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 소득과 연계한 문화관광시설 확충 등을 내놨다.

무소속 김승규 예비후보는 기획재정부 국장, 청와대 민정행정관, 전남지사 경제보좌관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다. 김 예비후보는 농수산물가공센터·물류단지·융복합산업단지 조성, 세계적 해양리조트 개발 등을 공약했다.

재선 신안군수를 역임한 무소속 박우량 예비후보는 “청년을 돌아오게 하려면 소득을 높일 터전을 만들어야하고 이는 행정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친환경 농수산업을 통한 잘 사는 1004섬 신안, 가고 싶을때 갈 수 있는 편리한 1004섬 신안, 1004섬만의 특수한 복지시스템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무소속 임흥빈 예비후보는 3선 전남도의원으로 동아인재대·전남도립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중단 없는 연륙·연도교 추진, 전국 최고 노인공경 군정, 섬마을 지원센터 설치 등을 공약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 신안군수 후보

정당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이름(나이)	고길호(73)	천경배(42)	정연선(64)
주요경력	신안군수	전 당대표비서실 부실장	전 전남도의원
주요공략	·십자형 도로망 완성 ·관광 500만시대 실현 ·권역별 특화품목 육성 ·읍·면에 종합운동장 조성 ·정의·신의·창의 실현	·노약자 병원선 배치 ·학생 상담 치료 지원 ·국제 섬 엑스포 유치 ·줄세우지 않는 인사 ·농수산 가공공장 운영	·연륙·연도교 조기 착공 ·항구적 물관리대책 마련 ·농축수산 소득 확충 ·문화 관광시설 확충 ·권역별 요양병원 확충

정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이름(나이)	김승규(62)	박우량(62)	임흥빈(57)
주요경력	전 청와대 민정행정관	전 신안군수	전 전남도의원
주요공략	·융복합산업단지 조성 ·세계적 해양리조트 개발 ·낙도 급수문제 해결 ·긴급 의료선박 운행 ·고령자 힐링센터 건립	·친환경 농·수산업 육성 ·야간여객선 운항 확대 ·큰섬에 특별 공원 조성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	·중단 없는 연륙·연도교 ·바다목장 내실 관리 ·노인공경 군정 ·섬마을 지원센터 설치 ·다도해 교육복지 실현

민주당 천경배 전략공천…평화당은 정연선

무소속 고길호·김승규·박우량·임흥빈 출마

1선거구 3파전… 2선거구 민주-평화당 맞대결

■ 전남도의원(신안)

신안에서는 전남도의원을 2명 선출한다.

제1선거구(압해·암태·자은·지도·증도·임자)에서는 민주당 김문수 후보와 평화당 최경순 후보, 무소속 김동근 예비후보 3파전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과 신안군교육청 교육과정운영위원 등을 지낸 김문수 후보는 “준비된 농·축·어민 후보로 일 잘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지부장과 신안미래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최경순 후보는 섬 전문가로 “풍부한 신안자원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근 예비후보는 4선 신안군의원으로 농·축·수산업을 발전시켜 군민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2선거구(흑산·비금·도초·하의·신의·장산·안좌·팔금)에서는 민주당 정광호 후보와 평화당 최영수 후보가 맞대결한다.

정 후보는 재선 군의원으로 신안군의회 의장을 지냈다. 그는 “신안군과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전남도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전남도와 군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최 후보는 “신안의 미래가치는 해양에 있다”며 “해양관광산업으로 주민소득 향상과 신안 이미지를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 신안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 름(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김문수(60·민·전 신안군의원) 최경순(54·평·신안군도시계획 자문위원) 김동근(65·무·신안군장애인후원회장)
제2선거구	정광호(55·민·전 신안군의회 의장) 최영수(57·평·세한대 경영학과 교수)

민=더불어민주당, 평=민주평화당, 무=무소속

※후보 순서는 현직·정당·가나다 順